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10)



사랑하는 세계 기독 간호재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 년도 벌써 6 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빠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6-17]*

이 말씀이 절실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세상은 멈출 줄 모르고
전쟁과 분리와 기아와 힘든 소식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보호 아래서 평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 선교 가족 여러분께 알려 드릴 말씀은 일년에 두 차례 발행해
오고 있던 WCNF 회보를 연말에 한 번만 하기로 국제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고 해마다 상반기에는 간단히 Newsletter 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선교 재단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 일은 항상 돕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선교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의 수고로 가능했습
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심는 여러분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새 일꾼들을 보내 주셨고, 7 월에는
바쁘신 현역 교수님들이 콩고 간호 조산 대학으로 직접 가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시며, WCNF 장학생 모집도
진행 중이고, 11 월에는 과테말라 단기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안젤라 서 드림

세계기독간호재단

제 13 차

정기총회 및 영적각성집회



우리와 사명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세계 각지의 기독간호사들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최신 의료
정보를 교류하며, 아름다운
호주의 블루마운틴을 탐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 정

일 시: 2025 년 2 월 3 일 (월)
~ 2 월 6 일 (목)

장 소: Australia Sydney,
Mercure Hotel

참가비: US \$ 750

(Blue Mountain tour,
비용포함, 비행기표 제외)





Congo Bunyakiri Mubuya Christian College Mission Trip

----- 최관신 선교사

이번 Mission Trip 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선교 여행”으로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Mission Trip 일정을 2024 년 7 월 15 일 ~ 7 월 31 일 약 2 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참가자는 김연수 교수, 남영주 교수, 박혜숙 이사, 김명자 사무총장 4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분이 한 달에 한 번 기도 및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져왔고 매일 아침 남영주 교수가 큐티를 위한 성경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

Mission Trip 일정 가운데 주일 날에는 키창가셀퍼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BMCC 에서는 김연수 교수, 남영주 교수, 김명자 교수 3 명의 교수가 1, 2 학년 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Empowering Women for a Better Future”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냐키리 예수병원에서 출산 전후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박혜숙 이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먹거리 사역을 하며 콩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중보건 포럼도 개최할 예정인데 남영주 교수와 김명자 사무총장이 포럼에 참여해서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일날 피그미 마을에 방문할 때는 특송 및 참가자 각자가 간증 및 설교를 할 예정이다.

기도 요청

Mission Trip 을 위해

- ✚ 참가하시는 모든 분이 먼 일정을 오고 가는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 ✚ 미션여행 일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만 높여 드리기를
- ✚ 현지인들이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여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 ✚ BMCC 를 통해 콩고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 ✚ 최관신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겸손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과테말라 치섹 갈릴리 공동체

----- 김도언, 주홍숙, 서복희 선교사

WCNF 에서는 오는 11 월에 갈릴리 공동체가 있는 과테말라 ‘치섹’으로 단기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열악한 환경의 가난한 곳이지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목적으로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함으로 원주민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 모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충만한 방문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보람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 공 고

일 정: 2024 년 11 월 11 일(월)
~ 11 월 15 일(금)

출국 일정: 11 월 10 일 (주일)

귀국 일정: 11 월 16 일 (토)

(5 박 6 일 일정)

* 선교 후 여행계획 있음

* 일정과 비용은 추후 발표

캄보디아

----- 성진숙 선교사

올해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더불어 강우와 천둥 번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어 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도 강풍과 폭우 그리고 천둥으로 에어컨 5대와 유리창이 몇 개 깨지고 지붕에서 부분적으로도 비가 새는 바람에 손해가 많고 복귀 작업하느라 분주합니다만 그나마 이 정도여서 참으로 감사하지요. 다행히도 우리 일행은 피해는 없었으나 주위에 더 큰 피해와 다친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기에 그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건축은 끝났지만 계속하여 적지 않은 운영과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말긴 사명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

- ✚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 학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구건희 총장님께서 WCNF 를 통해서 간호대학 학장 자리가 채워지길
- ✚ zoom 이나 on-line 학습으로 학습을 도우실 교수님들을 찾을 수 있기를
- ✚ 쏘도릭과 봇리앵 두 의사가 시험에 합격하여 진료소를 맡게 되길
- ✚ WCNF 진료소에 모이고 있는 환자들이 육신의 치료와 함께 영혼 구원도 함께 이뤄지길
- ✚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 주 80~90 여 명 모이는데 유치원과 방과 후 교실도 잘 운영이 되는 중인데 계속 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길

니제르 소식

----- 서은성, 김민선 선교사



1. **형통해도, 곤고해도 주의 뜻을 이루는 날들입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 소식과 경제 제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복음이 우리의 매일을 덮고 있습니다:** 이사한 집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공부 그룹이 다시 모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며, 모슬렘 청소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성장하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잘 양육 받아서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된 제자들:** 서은성 선교사님의 성경학교 제자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어,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4. **성경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제르 각 가정과 지역 교회에 기독교 교육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배우며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성경 교육, 찬송 가르치기 교육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5. **자녀 이야기 - 지훈:** 군 복무 후 미국으로 복학(Computer Science 전공), 유나(기계 공학 전공)하여 공부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헤브론 대학

-----박순복 선교사

“선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이며, 선교사는 그 이야기의 메신저이다.” (하용조 목사)

죽음의 4월이라는 무더운 더위를 잘 지나게 하시고, 2, 3, 4 학년 기숙사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사고 없이 학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방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4일에는 제 4기 학생들 31명의 completion ceremony 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엘리자베스 슈윙 간호선교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전 삶을 조선에 쏟아부었던 슈윙의 침대맡에 적혀 있었던 글귀, “Not Success, But Service”를 제목으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각자 있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양육 받던 학생들이 이번에 졸업하여 헤브론 병원에 자발적으로 취업도 하였고, 그중에 한 명은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위해 헤브론에 남기로 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쉴 새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자주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시고 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전 삶을 주께 드려 사는 유능한 인재로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큰 힘이 되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의 평안을 빕니다.

기도 요청

- ✚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힘과 지혜로 모든 책임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 ✚ 주신 비전대로 전 삶을 주께 드려 사는 유능한 인재로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 ✚ 맡겨주신 학생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 ✚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들을 할 수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 ✚ 이곳에서 일할 준비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과테말라 갈릴리 공동체

-----주홍숙 선교사님

과테말라 치색 인디오 마을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주홍숙 선교사님께서 전주 예수간호대학 동기동창 박혜숙 이사님의 초청으로 LA 에 오셨다. 치색은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티로부터 8시간을 차로 들어가는 외딴곳이다. 주민들의 96%가 마야 인디오들의 후예이며 가난과 문맹과 눈물과 억울함이 있는 곳이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한 집에서 자라고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20여 년 전에 김도운 선교사님은 도시 선교 대신에 이곳 치색을 택해서 갈릴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들고 이 마을의 등불이 되어 주고 계시는데, 주홍숙 선교사님도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 WCNF 에서 2023년 11월에 치색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모두가 많은 도전을 받았다. LA 에서 다시 뵈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가락들과 아픈 허리로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든 부엌일을 담당하시고 항상 웃으시며 원주민들을 일일이 돌보고, 온갖 살림을 맡아서 하시며 그 오지에서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주홍숙 간호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곳 아이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

-----신기조 선교사



기도 요청

- ✚ 센터 가족들이 하나 되어 영적, 육적 건강과 각자 하나님께 인도 하심에 민감하도록
- ✚ 정재윤 목사와 그 가족들의 정착과 정 목사 중심으로 센터의 영적 부흥을 위해
- ✚ 새 가족 짬라온과 스라이 빠의 영적, 학문적 성장을 위해
- ✚ 브링업 캄보디아 유치원 사역을 위해: 건물 개보수 비용 (55,000\$~60,000\$), 직원 채용, 교사 확보, 개보수와 개보수 후 필요한 물품 재정 확보를 위해
- ✚ 여름 방학 방문 예정인 단기 팀들의 은혜로운 사역: 강릉 영동대 간호학부, 브링업 주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영어 캠프, 청주대 단기선교팀, 서울 기쁜소식교회 청년대학부, 온누리교회 길공동체 청년부

지난 2023년 10월 28일 우리 대학교와 브링업 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로 영어 캠프와 직업교육과 유치원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사역 본부장을 정재윤 선교사가 맡기로 하였고 사란과 체잉원과 싘띠와 끼어가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브링업 캄보디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유치원 사역을 위하여 대학교로부터 건물을 하나 받았는데, 앞으로 수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스펠하우스 센터는 정재윤 선교사가 예배 인도와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학교 보건실은 역시 임평강 선교사가 치료 중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7일~9일까지 센터가족들과 고향에 있는 한 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위생 교육도 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책과 물건들을 사서 나누었습니다. 예배공동체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할 것을 찾아서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24일 주일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싘띠, 쏘니, 처위, 녕끼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심한 무더위 때문에 진료와 휴식 차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를 방문할 단기 선교팀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쉬면서 저하된 체력도 보강하고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드

----- 권홍량, 임헌진 선교사

- ✚ 권홍량 선교사가 일상생활을 잘 하며 지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건강의 문제들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로 집중하기를 소원하며, 허락하시는 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 ✚ 임헌진 선교사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며, 딸 하나의 유방암 재발이 되지 않게 도와시고 권 목사님의 간암과 간이식 문제와 자녀들의 간 기증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 ✚ 공동체 사역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며, 쌀농사 교육사역을 하시는 신진철 선교사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 ✚ 권홍량, 임헌진 선교사가 최근 차드를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사역지를 방문하고 책임자들을 권면하고 현지인들을 위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드 선교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활발히 부흥되도록 인도하소서



한국 다문화 아동사역

----- 오은주화 교수

기도 요청

1. 조이월드 주일학교가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의료 선교 때 만났던 스리랑카 가정의 '데산이'와 '데사리'가 주일 학교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 매월 첫째 주일에는 내과, 치과 그리고 한방으로 의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홀수 달에는 미용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두명의 청소년이 처음으로 지역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토요일마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다녀오며 졸업하였습니다. 3월과 4월 토요일마다 진행되었고 참여 청소년은 호나라(스리랑카 고 2) 그리고 니기나 (우즈벡 중 3)입니다.
- 이주민 주일학교에서는 매 주일 10개국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다문화 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 2024년 새 학년 봄학기 돌봄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9개국 18명의 아이들이 돌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센터의 사역 동역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 ✚ 센터와 주일학교에서 이주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돌볼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주일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 ✚ 4~6월까지 진행되는 열매 학교 3기 (제자 훈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사들이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 ✚ 이주민 사역과 상담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네 팔

----- 방영숙, 윤종수 선교사



저희는 청소년을 기르는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네팔의 복음화를 위한 신실한 선교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 고티라함의 레비카가 치과 병원에서 모든 실습을 잘 마치고 Dental Hygienist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의료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 ✚ 12학년을 마친 런지따, 모니카, 스리스티가 간호대학 입학시험 준비 중인데 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힌두권에서 신실한 기독 간호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 ✚ 육군 의과대학 2학년 과정 중에 있는 투싸마야가 주어진 과정을 마치고 기독 여의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 ✚ 들꽃 제자반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 ✚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임마누엘교회의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는 뉴선이 신실하게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WCNF 의 동역자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2015년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 일하셨던 장근숙 선생님을
통해서 WCNF 을 처음 알게 되었고, 뉴욕지회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권유가
계셨지만, 이제야 순종의 마음으로 뉴욕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선배 동역자님들이 걸어가는 길을 기도와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뉴욕지회를 위해 많은 격려와 중보의
기도를 모든 회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2년 서울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음악에 뜻이 있어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였고, 도미 후에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Acute Hemodialysis Unit 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뜻이 있어 2019년부터 시작했던 목회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WCNF 의 모든 동역자님과 함께 사도바울의 선교적 삶의 고백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 2: 20) 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만을 향하여 나아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뉴욕 지회장
전화연 드림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온 뒤 시애틀로
이주해서 살던 중 2005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007년도에
서부 아프리카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선교지에 간호사들을 양육하는 교육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2013년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세계기독교 간호
재단 파송으로 스와질란드 기독교 대학에 간호 학과장, 보건대 학장으로
2년 7개월간 재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시애틀로 귀임한 후 여러 대학에서 간호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텍사스 스테이트 대학, 간호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올해 초 세계 기독교 간호재단에서
보내주신 회보를 보고 콩고의 부냐 끼리 무부야 조산대학 사역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여름에 계획된
비전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직을 권유받고 지난 20여 년의 기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지 곳곳에 간호대학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신 수많은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미약한 힘이지만 세계 기독교
간호 재단에 도움이 되고 재단의 목적에 맞게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사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 이사 및 텍사스 오스틴 지회장
남영주 드림

징검다리 회원님들과
미주 세계 기독교 간호재단 회원님들께,
2025년 징검다리 여름 성령의 샘 캠프 / 뉴코리아 섬김 수련회에
(Stepping Stone Pneuma Springs Camp / New Korea Servant Retreat)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하시길 것입니다.

일시: 2025년 7월 27일 (일) ~ 8월 1일 (금)

장소: YWAM AIIM in Monroe, Washington



오대원 (David Ross, a missionary for Korea) 목사님께서
1996년에 설립하신 북한선교 안디옥 훈련원입니다.
현재는 북한 선교를 10여 년하신 Peter Yang 목사님이 디렉터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소: 10211 Bollenbaugh Hill Rd. Monroe, WA 98272.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424)426-5435, Cell (949) 933-1287
E-MAIL wcnfusa@gmail.com, wcnfusa.org/Zelle I.D-wcnfusa@gmail.com
한국지부: Tel (02) 764-1227 Cell 010-9933-2901
wcnfkorea@hanmail.net, wcnfkorea.org
호주지부: Tel (+61) 411-879-778 wcnfaustralia@gmail.com